

## 중견교수로 불릴 고달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남들이 나를 중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중견교수, 중년부인, 중산층, 중상층 등등,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나는 이제 '가운데로 가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교직원 명부에서도 이름자가 어느덧 위쪽으로 올라가 박히게 되고, 내 집안에도 중산층을 상징한다는 제품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만사가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경험, 이런저런 일에 따른 피로, 평범한 것들에 대한 바람, 일을 조금씩 미루는 식의 나태함. 나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이 모든 징후들은 어김없는 중년의 증세일 것이다. 나로서야 하루하루 용을 쓰면서 살아왔건만, 대학에서의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니 업적이라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누구 말대로 주부교수의 공부란 것이 기껏해야 반나절 공부라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가운데로 가는 길'을 앞에 두고, 과연 내가 실제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를 문득문득 자신에게

되물어 보곤 한다. 그래도 내가 벌이는 일들이 크게 그릇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것은 중년을 시작하는 내 자세가 적이 반성적이기 때문이다.

2,30대에 내가 쓴 몇몇 글들을 지금 읽어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어찌자고 그토록 남을 세차게 탓하는 글들을 썼던지... 명색이 사회과학도라고 나는 이웃이며, 동료며, 재벌이며, 관료며 할 것 없이, 우선 그들이 악의 한 원천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글을 썼었다. 그 시절 나는 비판적인 눈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글은 애초부터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제 중년으로 불리는 나이에 접어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사방의 모든 어두운 일들에 나 자신이 조금씩 개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남을 비판하는 위치에서 밀려나와 비판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 그러나 어디가서 논문을 발표하는 일도 겁나고, 사회의 굵직

한 사건들에 대해 한마디씩 하는 입장에서 일도 겁이 나는 것이다. 알음알이로써 일이 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포함하여 어디서건, 병원이건, 법원이건, 신문사건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일이 풀려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의 이 지위와 함께 중견으로 불리게 된 내가 어찌 이 사회의 그늘과 악연들 개입되어 있지 않겠는가. '지존파'사건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도 나는 이런 상념으로 인해 글쓰기를 포기하고 쓰다만 글을 일기장에 끼어두고 말았다.

일기장을 자주 꺼내는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당장은 나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이 증세들로부터 '가운데로 가는 길'을 위한 지혜를 배우려니 싶기도 하다. 중년으로 불리움을 계기로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주변을 보다 진솔한 눈으로 볼 줄 아는 지식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이 또한 누군가로부터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위기'라는 말이 사회학적 함의를 띠고 도처에서 위세를 떨치더니 이제 그 자리를 '경쟁'이라는 단어가 넘겨받은 것 같다. "국가경쟁력 제고", "국제경쟁력 강화", "무한경쟁시대", "대학사회도 경쟁의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장에서도 경쟁의 효율을 따지는 논의들로 부산하다. 속진제, 월반제를 도입하자든지, UR에 대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든지 등등. 그런 논의들을 따라가다 보면 웬만큼 귀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어느 만큼이 교육에 관한 논의이고 어느 만큼이 시장에 관한 논의인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법철학이라는 내 전공 타인지는 몰라도 나는 효율성의 체계로서의 경쟁보다는 경쟁의 낙오자에게도 마음을 쓰는 형평성의 체계쪽으로 더 이끌리는 지적 성장을 거쳐왔다고 생각된다.

대학의 낙후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로써 경쟁원리가 대학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점에서 작금의 대학평가제도에 거는 기대도 크다. 사실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자들이 대학문을 나오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그들이 만약 대학을 나와서 우리 대학사회의 실상을 알았다더라면 많은 대학들이 진작에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 의해 거덜났을 것이다. 그들은 교수란 사람들 또한 어떤 식으로든 지금처럼 대접받고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외국과 비교한 많은 수치적 지표들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다. 지난 10여 년간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더 거슬러 올라가 학창시절을 보내는 동안 내 스스로 대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가 보다는 대학이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는 회의와 자책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이제 대학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찾고자 애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대를 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른 의문이 생김을 털어 놓지 않을 수 없다.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교수업적평가제 등이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필요한 제도들이 평가지상주의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어떤 급박한 분위기에 휩싸여 또 다른 왜곡된 대학상을 만들어 내게나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대학 안에 들어오는 효율성의 원리, 경쟁의 원리는 시장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도대체가 자본주의체제 한가운데서 살면서 시장성과 구별되는 경쟁과 효율원리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질타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대학에 적용되는 평가원리나 관리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경영의 그것과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대학들이 이즈음 순위경쟁에 골몰하면서부터 이 분야 교수들의 보직진출이 눈에 띄기도 한다. 그러나 전 지구촌의 시장화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예컨대 이들, 보다 나은 시장을 꿈꾸는 사람들, 혹은 시장보다 나은 그 무엇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지적 소요(騷擾)를 일으키는 곳이 다름 아닌 대학이라 생각된다. 이 지적 소요를 우리는 학문의 자유라는 포괄적 이념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사회에 적용될 경쟁이나 효율성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여하한 기능주의나 물량주의, 업적주의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야말로 지적 소요의 장인 학문의 전당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보면 대학을 평가하는 원리는 학문의 자유 자체로부터 나와야 하며, 어떤 대학 밖의 척도나 가치관 내지 합목적성에 종속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대학종합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많은 대학들은 위로는 교육목적의 적절성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 개선노력, 졸업생의 취업정도, 학생탈락

률 정도, 교수의 연구비 수혜액수, 사회봉사 행정체제, 교수의 국내외연수 참여실적, 그리고 아래로는 대학내 후생편의 시설의 구비상태에 이르기까지 80여 평가항목에 따른 150여 주요 평가지표들을 나뉠대로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교수들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회의에 불려나가기도 하고 서면으로 이런저런 독촉들을 받았을 터이다.

평가를 위한 준비한 항목들을 훑어 보면 우선 기가 질린다. 한국의 대학들은 아마도 앞으로 수년 동안은 이 평가와 관련된 지표를 따라잡는 이외에는 어떠한 과제도 꿈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이 평가에 대비하기 시작하면서 명백히 달라진 점은 본부로부터 교수들에게 전달되는 서면들이 엄청나게 두꺼워져 간다는 점이다. 솔직히 대학이 지금보다 달라지려면 쫓겨나는 교수도 생기고 문을 닫는 학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이 민주화된 개명천지에 함부로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것이니, 가능한 한 많은 객관적 평가지표들을 부득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교수를 평가하기 위한 이 무지막지한 나열주의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사회의 의의를 훼손하는 가치들이 개입되어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나열주의는 학문하는 인간상을 자율적인 인간상으로 그려 보이기보다는 타율적인 인간상으로 그려 보인다. 교수란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에 이끌려 업적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소신껏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활력으로 업적을 내는 사람들이다.

나는 여기서 이들 평가항목들 중에 상호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 문제나, 과연 어느쪽으로 평가해 줘야 옳을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내용도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 일일이 예시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요컨대 이러한 평가지표들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과 대학인들을 현실적인 목표에 어느 정도 굴복케하는 불가피한 단기적 처방들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사회에 부득이 적용될 평가항목들은 우선 간략할수록 좋다. 준비한 평가항목들에 대한 대학사회의 원초적 저항은 대학인들이 그들의 무능력을 덮고자 함이 아니라, 어떠한 현실적인 합목적성도 설정하지 않으려는 가운데 대학인으로 숨쉬기 위함인 것이다.

이 모든 생각들이 이런저런 서류만들기가 버거워지고, 경쟁이 겁나고, 남으로부터의 비판이 겁나는 중년의 나이로 접어든 탓에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글을 쓰지 말아야 할까 보다.

‘가운데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지혜를 담았다는 책(中庸)을 다시 펼치니 언뜻 다음과 같은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不誠無物. 성실함이 없으면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옳거니, 이 말을 평가지표로 삼아서 앞으로 한 10년 ‘가운데로 가는 길’로 소신껏 나서 보자. 설마하니 중년의 대학교수가 고달프다 한들 점수를 채우지 못해 그렇기야 하겠는가. ■

---

박은정/이화여대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옌칭 연구소 초청교수를 지냈고 현재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소장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 『자연법사상』,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철학』, 편역서로 『라스브루흐의 법철학』, 공역서로 『법철학과 법사학』 등이 있다.